

## ‘입추가 무색’ 광주·전남 불볕더위 연일 맹위

광주·전남 전 시·군에 연일 폭염경보

밤사이 대부분 지역서 ‘열대야’ 관측

절기 상 입추(立秋)인 7일에도 광주·전남 모든 시군에 내려진 폭염 경보가 유지되는 등 불볕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곡성 35.2도, 순천 황전 35.3도, 구례 35.2도, 화순 35도, 담양 34.8도, 광주 34.2도, 장흥 33.9도, 광양 33.8도, 해남 33.7도, 영광 33.6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습도까지 감안한 체감 기온은 36도 안팎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전날 광주와 전남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폭염 경보도 유지되고 있다. 신안 흑산도·홍도와 여수 거문도·초도에는 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이를 연속 35도 이상으로 예측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주의보는 이

를 이상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때 내려진다. 또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에 발효된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예상 강수량은 5~40mm이며,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선 열대야도 관측됐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이튿날 오전 9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지난 밤 보성·고흥에서만 열대야가 없었다.

지난 최저기온은 완도·목포 27.6도, 광주 27.3도, 여수 26.8도, 영광·진도 26.7도, 신안·



폭염특보가 내려진 6일 오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수거리 수락폭포에서 피서객들이 폭포를 맞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해남 26.5도, 함평 26.3도, 무안·담양·광양·순천 26.2도, 구례 25.9도, 장성 25.8도, 강진 25.5도, 나주 25.4도, 곡성·화순·영암 25.2도, 장흥 25도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연속 열

대야를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광주 도심서 말라 죽는 횃집 앞 가로수...원인 규명·정비 시급

광주 도심에서 횃집 주변 일부 가로수가 고사 직전 상태를 보이면서 진단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시내 횃집 4곳 주변에 늘어진 가로수 일부가 말라 있었다.

이 중 한 횃집 앞 가로수는 밑동의 껍질이 손상된 데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여름철 풍성한 초록 잎을 띠는 주변 가로수들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다른 횃집 앞 가로수들도 잎이 없거나 노란빛을 띠며 시든 모습이다.

도심 내 가로수로 식재되는 은행·느티나무는 해안가에서 자라는 곱슬과 달리 내염성이 낮다. 이 가로수들은 바닷물 성분인 염화칼슘을 흡수하면 고사할 위험이 크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횃집 앞에 가로수 염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 팻말도 부착했지만, 해당 가로수는 고사 직전에 놓인 모습이다.

광주 지역 가로수 관리는 각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가 훼손 신고 때만 현장 조치를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 때문에 정기적인 가로수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 가로수 훼손 신고 건수는 ▲2020년 교통사고 31건·무단 훼손 5건 ▲지난해 교통사고 43건·무단 훼손 5건 ▲올해 8월 5일 기준 교통사고 22건·무단 훼손 2건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가로수들이 염분 피해를 봐 고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백생태연구소 김영선 박사는 7일 “일부 나무는 80%가량 고사했다. 근처에서 흘러나온 염분이 나무를 말라 죽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자체도 염분 피해 예방 팻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가로수로 흐르지 않도록 별도의 수로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나무들이 도심 내 열섬 현상을 낮추고 바람 통로 역할을 하는 만큼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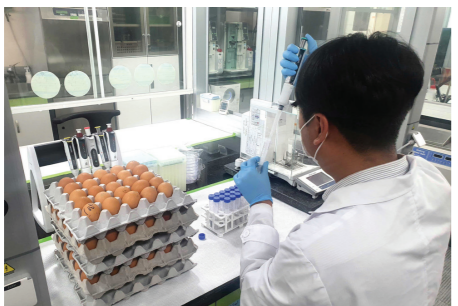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토양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시든 가로수에 대한 현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바닷물은 하수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규정된 오·폐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에 바닷물을 방류하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다만 광주시는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수 훼손 당사자에게 복구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유나 기자

### 전남 생산 계란 안전성 집중 검사...모두 ‘적합’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살모넬라균·살충제·항생제 잔류 검사



산란 중인 도내 농장 11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군 공무원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계란을 수거했다.

검사 항목은 피프롤닐, 비렌트린 등 살충제 34종, 페니실린 등 항생제 47종의 잔류 물질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변질·부패검사 등이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검사에서 제외된 계란 미생산 농가와 시중 유통 계란에 대해서도 10월 중 검사를 추진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윤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고 농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

광주·전남 연일 6000명대 확진

지난달부터 급증세...8월 첫 주만 3만3260명 확진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 접어든 광주·전남에서 하루 확진자가 연일 6000명대를 넘기고 있다.

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415명, 전남 3288명 등 총 6703명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다.

최근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 추이는 지난달 27일 4887명, 28일 4747명, 29일 4488명, 30일 4479명, 31일 2943명, 8월 1일 5780명, 2일 7188명, 3일 6575명, 4일 7281명, 5일 6436명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2000명대, 6월 300~800명대로 감소했으나 여름 휴가를 맞은 7월부터 줄곧 감염 증가세다.

월별 확진자로는 따져도 5월 6만3752명, 6월 1만3820명, 7월 7만1027명이었다. 이달 들어 첫 주에만 3만3260명을 기록했다.

전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581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도 감염자 1명이 숨져 519번째 사망자로 기록됐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광주 2명, 전남 1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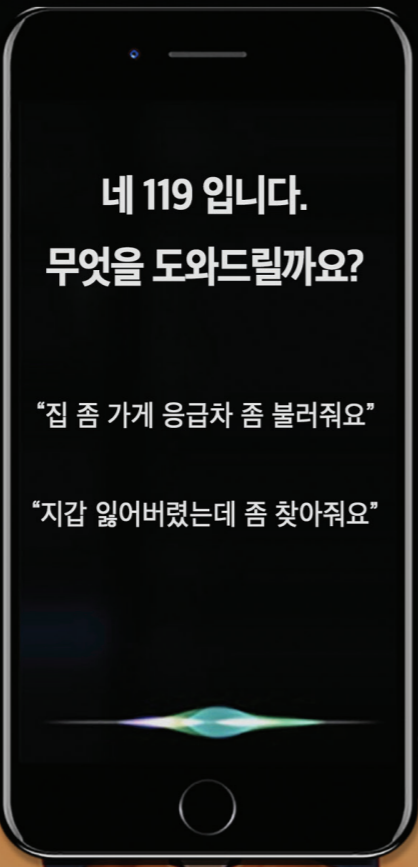
전남 22개 전 시군 별 확진자 수는 여수 627명, 순천 520명, 목포 441명, 광양 275명, 나주 240명, 무안 171명, 화순 120명, 고흥 104명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이어 해남 92명, 영광 87명, 장흥 86명, 담양 71명, 완도 61명, 영암 54명, 장성 53명, 강진 52명, 곡성 48명, 보성 44명, 신안 41명, 구례 38명, 함평 35명, 진도 28명 순이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